

2009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동향

박경남*

1. 서론
2. 단행본을 통해 본 연구 경향
3. 학술지 기획 주제 및 논문 개괄
4. 교류에 관한 다방면적 접근
5. 일상과 여성이라는 주제
6. 결론

1. 서론

국문학회에서 한 해 동안에 나온 각 분야의 연구사를 정리해서 학계에 보고하기 시작한 것이 1997년부터이니 매년의 연구 동향을 점검해 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다. 필자가 한문학 분야 연구사 정리의 책임을 맡고 나서 지나온 자취를 더듬어보니 연구사를 정리하는 이 일 자체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한문학 분야만을 돌이켜 보면 초반의 몇 년 동안은 한시·한문산문·한문비평 등의 형식적 분류틀을 유지하면서 한 해 동안 나온 한문학 내 각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그 목록만이라도 되도록 많이, 빠뜨리지 않고 보고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2년도부터는 매년 쏟아져 나오는 너무나도 많은 연구 실적들을 다 호명하며 거기에 단편적인 소감을 덧붙이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문학 내부의 형식적 장르를 넘어 한문학 연구자들이 한 해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했는지, 그 전체적인 동향을 살피고 그 속에서 한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가늠해보는 식으로 서술 방식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사후 연구원

분류의 초점이 외면적 ‘형식’이 아니라 내면적인 ‘주제’로 바뀌는 순간, 그 주제 안에 들지 못하는 많은 연구 성과들이 불가피하게 본문 안에서 조명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연구자들의 한 해 동안의 고민이 무엇이었던가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연구사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데이터의 제공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동료로서 지금 이 순간 한번쯤 생각해 보고 서로 대화해 볼 애깃거리, 혹은 고민 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았나 싶다. 필자가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알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통과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학회지에 투고를 하거나 발표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혼잣말처럼 되뇌고 있었던 것일까?

2. 단행본을 통해 본 연구 경향

먼저 단행본의 형태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온 譯註書와 연구서를 돌아보면, 2009년 한 해 역시 前年度와 같이 본격적인 연구서보다는 주목할 만한 일반교양서들이 더욱 많이 출간되었다. 그런 가운데 元老·少壯 학자들이 각자가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저마다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한 해라고 할 만하다. 학계의 원로인 이우성은 오랫동안 함께 강독해 온 後學이자 同學들인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柳得恭(1748~1807)의 『二十一都懷古詩』를 譯註해 냈으로써 여전히 식지 않는 학문적 열정을 보여주었다. 『二十一都懷古詩』 역주본 출간은 『渤海攷』를 통해 남다른 역사의식을 보여 주었던 역사가이자 詠史 詩人으로서의 유득공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임형택은 최근 대중 강연을 통해 선보였던 ‘실학’에 대한 자신의 현재적 고민을 『문명의식과 실학』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민족’과 ‘근대’의 출발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실학’을, 새로운 문명과의 교섭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주체성과 더 나은 문명에 대한 개방적이고도 소통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창조적

전환을 모색했던 학문으로 새롭게 위치지우고 있다.

강명관·박희병·심경호·안대회·이종목·정민 등은 이미 학계를 넘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저술가로도 유명한데, 올해도 쉬지 않고 以前 저술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혹은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업을 선보였다.

강명관은 『열녀의 탄생』을 출간했는데 그 페이지만 855면이다. 하지만 저자도 말하고 있듯 이 장편의 저서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조선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화·의식화’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순 명쾌한 결론이 ‘여성’이라는 주제와 씨름해 왔던 ‘여성’ 연구자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이에 대해서는 주제별 논의에서 간략하게나마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박희병은 李彦瑱의 『衎衎居室』 번역본인 『골목길 나의 집』과 그에 기초한 評說인 『저항과 아만』을 펴냈고, 이전부터 후학들과 함께 읽어오고 있는 연암 산문에 譯注와 이본 대조 및 評批를 모은 『연암산문정독』 제2권을 출간했다. 『저항과 아만』에서는 원전을 재검토하고 여러 이본을 대조하여 『衎衎居室』이라는 원래 이름을 되찾아 주었고, 각 시 편의 순서와 詩語를 원전의 모습에 가깝게 재구성했으며, 시 속에 자주 등장하는 白話들에 대한 주석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런 꼼꼼한 기초 작업 위에 평설을 덧붙여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될 수 없는 이언진의 다각적인 모습을 온전히 밝혀 놓고 있다.

김혈조는 이전 번역본의 여러 형태의 오역을 바로 잡고, 연암이 燕行에서 다녔던 장소를 직접 답사하며 글의 진위를 파악하는가 하면, 기록된 사실의 이해를 돕는 여러 장의 사진을 담아 『열하일기』 번역의 완역판을 내놓았다.

심경호의 『내면기행』은 옛 사람들의 自撰墓表·墓誌와 自銘을 한 곳에 모은 편역서이다. 자찬 묘지문의 번역문 뒤에 첨부한 간략하고도 요령있는 해설은 자찬 묘지문의 작자가 왜 스스로 묘지문을 쓰게 되었던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죽음을 응시하는’ 한 개인의 ‘내면’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안대회는 소소한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전 산문을 선별한 후, 각각의 글에 評說을 부친 『부족해도 넉넉하다』를 출간했고, 정민은 『죽비소리』나

『한서 이불 논어 병풍』과 유사한 형식의 『성대중 처세어록』을 선보였다. 이종목은 『우리 한시를 읽다』에서 각 시대의 名篇들을 선별해 五感과 머리를 다 동원하여 우리 한시를 읽는 맛깔스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사의당 지 우리 집을 말한다』를 번역해 18세기 한 사대부가의 주거 문화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일상에 주목하는 경향은 최근 번역뿐 아니라 연구의 주요한 테마로 자리잡았다. 이 역시 주제별 논의해서 일기 자료 발굴 소개와 함께 간략히 그 의미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 단행본을 통해 살펴본 2009년의 대체적인 연구 경향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본격적인 연구서보다는 일반 대중들도 흥미롭게 읽을 만한 교양대중서가 훨씬 더 많이 출간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양대중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들 저서들을 잘 살펴보면 그 실상은 연구서에 버금가는 공력이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다.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표지디자인과 쉬운 말투와 참신한 시각 자료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대중과 만나기 전에 치밀한 고증을 거친 학문적 엄밀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여 대중을 심화된 인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연구서보다 교양대중서가 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연구자 본연의 임무는 물론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심화된 인식을 보여주는 논문을 생산하는 것이겠지만, 자기 연구의 치밀함과 엄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를 더 많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연구자가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의무가 아닐까? 특히 일반 대중들도 서점에서 쉽게 사볼 수 있는 단행본의 형태라면 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제 고전 연구자는 학회지에 실을 논문의 언어와 대중과 접촉할 대중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 학술 연구자와 지식 대중들의 접촉이 활발할수록 연구자는 자기 연구의 활용 능력을 높일 것이고, 대중들은 스스로의 지적 수준을 고양시킬 것이기에 대중적 소통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다만 연구의 대중화가

확산될수록 연구자가 더욱 망각하지 말아야 사실은 자기 연구의 심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가 튼실하지 못한 건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뿌리가 깊지 못한 학문은 작은 바람에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술지 기획 주제 및 논문 개괄

본 장에서는 학회지의 기획 주제나 특집의 대체적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6년 한문학 연구사에서부터 기획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2007년에 계승되다가 작년에는 약간의 회의적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요즘처럼 우후죽순으로 학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는 한 해의 연구사 정리에서 학회의 ‘기획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연구자들끼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고양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2009년 한 해 동안 한문학 연구와 관련하여 기획된 주제들을 필자가 나름대로 분류해서 정리한 도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발행기관	학술지명	기획주제 / 특집	성격/ 주제
1	대동한문학회	『대동한문학』 31	21세기 사회변동과 한국한문학 연구의 방향	총론
2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18	동아시아 實學, 그 意味와 發展	교류
3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68	17~19세기 동아시아 지식 정보의 유통과 네트워크	
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45	문헌교류와 지식의 소통	
5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 20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그 안과 밖	
6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 21	조선시대 한문학의 대외인식	
7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43	한국한문학과 바다	
8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44	한국한문학과 중국	

9	대동한문학회	『대동한문학』 30	朝鮮時代 日記類 資料와 士大夫의 日常	일상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여성과 법, 제도	여성
11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39	事件의 記錄과 漢文學	장르/문체
12	한국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 35	조선후기 서울지역의 문학과 도시문화사	지역
1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39	18세기 嶺南 한문학의 전개	
14	동양한문학회	『동양한문학연구』 28·29	조선의 인문정신을 열어간 사람들: 김종직 선생과 그의 '젊은' 제자들 II·III	인물
15	남명학연구소	『남명학연구』 27·28	侂宇 郭鍾錫의 학문과 사상	
16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66	새로 발굴한 정조 어찰의 종합적 검토	
17	진단학회	『진단학보』 108	林圀經濟志의 종합적 고찰	
18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 41	신채호의 문학과 아나키즘	

위 도표에 제시된 각 학회의 기획 주제 및 관련 논문은 검색의 편의를 위해 참고문헌에 따로 분류해서 밝혀 놓았다. 또한 필자는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것을 감안하면서도 각 학회의 '기획주제/특집'의 성격 및 주제들을 분류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논의의 순서에 따라 재배치해 보았다. 도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2009년 한 해 동안 각 학회는 매우 다양한 논의의 특집 기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획의 주제와 그 주제 하에 실린 원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른쪽 '성격/주제' 항목에 밝혀져 있듯, 대체로 전년도 기획 주제는 '총론'·'교류'·'일상'·'여성'·'장르/문체'·'지역'·'인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총론'은 대동한문학회가 작년에 기획 주제의 하나로, '한문학 연구의 방향'을 점검하며 한문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를 진행했기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당시 연구사를 점검한 이들은 안대회·강명관·심경호·이종묵·송병렬·김철조·이상하로,¹⁾ 여기서 논의된 주제의 핵심어들을 간추

1) 안대회, 「21세기 사회변동과 한국 한문학 연구의 방향」; 강명관, 「전근대 문학에 있어서 생활과 문학의 交織」; 심경호, 「글로벌시대 한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이종묵, 「다전공 복합학

리면, '21세기 사회변동'·'생활과 문학'·'글로벌시대'·'다전공 복합학문 시대'·'디지털 시대'·'고전의 대중화'·'학제간 연계' 등으로, 결국 변화된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부응하는 한문학의 방향을 점검했음을 알 수 있다.

'총론'에서 논의된 주제들을 위 도표의 '성격' 부분과 비교해 보면,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뚜렷한 공감을 얻고 있는 주제가 "세계화 시대에 한문학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임을 간단히 알 수 있다. 1번 총론을 제외한 전년도 각 학회의 기획주제가 17개인데, 그 중 도표의 2~8에 해당하는 7개의 주제가 모두 '세계화'의 실현 형태인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총론에서 거론된 '생활'이라는 주제는 9번의 '일상'이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10번의 '여성'이라는 주제는 1번의 총론에 실린 논문에서도 일부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前面에 뚜렷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로 보면 '여성'과 '일상'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 강도는 예전에 비해 많이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11번인 '장르/문체'와 12·13번의 '지역' 또한 한문학 연구 방향을 점검한 위의 논자들 중 아무도 중점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간의 한문학 연구사를 점검해 보면 '지역'이라는 주제도 최근 몇 년 동안 비교적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 역시 전체적으로는 그 관심이 다소 퇴조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인물'이라고 분류한 기획 주제(14~18)도 전년도 기획의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학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획 방법으로 새로운 인물과 자료를 발굴·소개하는 취지에서 한 인물의 다양한 측면을 철학·정치·문학 등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이어서 대체로 해설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 중 16번의 기획물은 새로 발굴된 正祖 御札의 자료적 성격을 밝히고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고, 17번은 『林園經濟志』에 대한 종합적 고찰인데, 각각 '어찰'과 『임원경제지』를 통해 '정조'와

문시대 한문학연구의 역할]; 송병렬, 「디지털 시대, 漢文教育의 代案 탐색」; 김혈조, 「한문 고전의 대중화 방안 모색」; 이상하, 「고전번역의 현실과 학제간 연계의 필요성」(※ 以上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서유구’라는 인물을 탐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획 성격을 ‘인물’로 분류했다. 또한 18번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자’ 신체호를 ‘아나키즘’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을 새로운 관점 속에서 재해석하는 인물 기획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제한된 지면에 이 기획물 모두를 다 검토할 수는 없다. 현재 학회 편집 기획자들의 관심과 필자의 관심이 접점을 이루는 부분인 ‘교류’·‘일상’·‘여성’의 문제에 집중하여 장을 나누어 간략하게나마 논의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회의 기획물들이 한 때의 유행에 흐르지 않고, 지속적이고 심화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학회가 어떤 주제를 선정해 여러 연구자들을 모아 놓고 집중적으로 토론·발표하게 하는 이유는 대체로 그 주제가 시의성이 있거나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획물들은 적어도 학회지를 읽는 사람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그 주제를 기획한 의도들이 기획물의 맨 앞에 총괄되어 논의되어야 하고, 또 그런 총괄 속에는 애초의 기획에 비추어 관련 논문들의 모색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학회 편집자의 평가와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²⁾ 그런 평가 작업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외부로 알려지며 소통될 때 다수의 학회들이 간혹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돌아가며 비슷한 수준의 논의를 반복하는 폐단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학회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중복된 기획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의 방식을 원용하여 전국의 한문학회를 연계하는 ‘한문학 통합 사이트’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회 간 정보 교환이 원활해지면, 같은 기획 주제를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하는 낭비적 요소가 사라지고, 때로는 하나의 큰 주제 아래 여러 학회가 영역을 나누어 거의 동시에 분야별 기획 주제를 마련해 큰 주제를 더욱 세부적으로 분담해 논의함으로써 연구 주제의 심화와 확대를

2) 등재(후보) 학술지 중 『민족문학사연구』는 일찍이 창간호부터 특집 기획물을 포함한 수록 논문 전체에 대한 요약과 결들인 평가를 책머리에 수록해 왔고, 『한국한문학연구』는 2009년 기획물에 한해서 ‘기조 발제’의 형식으로 기획의 의미를 밝혀 보인 바 있어, 그렇지 못한 학술지들의 개선에 참조가 될 만하다.

동시에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재의 관심을 발 빠르게 반영하는 단발성의 기획 주제 역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초 학문인 인문학의 특성에 걸맞는 ‘장기 기획 주제’를 선정해서,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 토론하면서 상호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하나의 주제를 계속 심화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교류에 관한 다방면적 접근

‘세계’와의 ‘교류’를 주제로 한 각 학회의 기획 논문을 검토해 보면 이 주제에 관한 논의가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도 깊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류’라는 항목으로 묶일 수 있는 각 학회의 기획들이 마치 사전 조율을 한 것처럼 중복된 점이 없어 이들 학회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기획물들은 “동아시아 차원의 실학”의 의미를 점검하고 있는가 하면(2),³⁾ 과거로 돌아가 “17~19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실제 교류의 모습을 燕行과 일본 使行에 관여했던 사대부 지식인 및 譯官들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으며(3),⁴⁾ 4번에서는 마치 2번과 3번의 기획주제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듯 ‘문헌교류’에 집중해서 중국과 한국의 지식 소통을 점검하고 있다.⁵⁾ 5번부터 8번까지도 나름대로 흥미로운 기획인데 5번은 주로

-
- 3) 임형택,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갈영보, 「시대는 동아시아의 ‘新實學’을 부르고 있다」; 오가와하루히사, 「實心實學 개념의 역사적 사명」(※ 以上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에 수록)
- 4)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한·중·일 간의 지식교류 양상 - ‘이성적 대화’의 열림을 주목해서」; 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 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 제임스 루이스, 「문명의 가격? - 17~19세기 조선의 일본으로의 사절의 역할과 비용」; 후마 스스무, 「국교 두절 하, 朝鮮-琉球 양국 사절단의 北京 접촉」(※ 以上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에 수록)
- 5) 金文京, 「高麗本 孝行錄과 中國의 <二十四孝>」; 李鍾默, 「17~18세기 中國에 전해진 朝鮮의 漢詩」(※ 以上 『한국문화』 제45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에 수록) 이 밖에 문헌 교류의 측면과 관계된 논문으로 서적 속의 圖像을 살핀 오오키 야스시, 「作者의 肖像: 동아시아 圖書史의 한 단면」,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도 그 새로운 측면의

18·19세기 중국·일본·러시아 사행의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여행을 통해 얻은 견문과 그 체험의 의미들을 되짚어 보고 있다.⁶⁾ 또한 그러한 활발한 교류 이전 조선인들의 일본 인식과, 교류의 확대 및 실제의 사행 체험 이후 조선인들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한 자리에 모아 그 변모의 양상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고(6,⁷⁾ 특히 한국한문학의 형성과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던 중국에 대해서는 鄭夢周의 詩부터 茶山의 論語說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문인들이 중국의 문학과 철학을 어떻게 참조하고 변형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있기도 하다(8).⁸⁾ 이 밖에 7번의 ‘바다’라는 주제 역시 요즘 『대항해시대』(주경철, 서울대출판부, 2008)라는 책 출간 등으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로,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 실제적 현장인 바다를 통한 교역과 교류의 여러 양상을 다각도로 접근하여 소개하고 있다.⁹⁾

하나의 주제에 관한 다양한 경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학회 간의 협업이고 분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발행기관을 살펴보니 모두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실상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을 빼면 대체로 특정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학회라서 역할 분담과 의사소통이 용이하지 않았나 싶다. 전국 각 지역에 다소 과도할 정도로 학회가

접근이 돋보이는 시도다.

- 6) 김혈조, 《熱河日記》를 통해서 본 燕行 사신의 의식주 생활;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戶 체험과 그 의미」; 김용태, 1790년 柳得恭이 만난 동아시아 - <熱河紀行詩註>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식, 「1896년 俄羅斯 使行, 《環璣日記》와 《環璣吟》 - 使行錄의 觀點에서 바라본 俄羅斯 使行」(※ 以上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에 수록)
- 7) 함영대, 임란이전 조선 중앙관료의 일본인식; 윤인현, 海行摠載 所載 일본 기행시 考察; 엄태웅, 연행 체험에 나타난 기억의 변모 양상 - <무오연행록>과 <연행가>를 중심으로 (※ 以上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에 수록)
- 8) 정일남, 「圃隱 鄭夢周 詩의 楚辭 수용 一考」; 김종서, 蓀谷 李達의 樂府詩 受容과 美的 成就; 박병익, 朝鮮朝의 西崑體 수용과 창작 양상; 정재철, 조선중기 문장가의 한유문 토석과 그 의미; 윤인현, 한국 詩歌論에서의 《詩經》詩 이론의 영향; 김연중, 茶山 論語說의 梗概와 그 精髓에 대하여 - 茶山의 “予所否者, 天厭之”解(※ 以上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에 수록)
- 9) 최영호,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허경진, 「水路朝天錄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정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 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探討」; 신익철, 申景濬의 국도지리관과 船舶에 대한 인식; 윤인현, 「韓國 漢詩에 나타난 ‘바다’ 소재와 주제」; 임재명, 「朝日 文士의 눈에 비친 南海 그리고 玄海灘 - 주로 使行 관련 詩文을 중심으로」(※ 以上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에 수록)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위와 같은 긴밀한 협업 체제는 각 지역의 여러 학회들이 중복이나 낭비적 요소 없이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시점에서 ‘국제 교류’라고 하는 다소 막연하기까지 한 큰 범위의 주제를 여러 학회가 분야와 역할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이고도 예각화된 접근을 시도해, ‘교류’와 관련된 사실들을 다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는 다수의 필진과 여러 각도의 조명이 요구되는 큰 범위의 연구 주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교류와 관련된 연구는 누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텍스트가 읽히고 전파되었는지를 광범위하게 살펴면서 그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과 그 중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책이나 한 편의 글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그 접촉과 수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접촉과 교류를 통해 상호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되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009년에 나온 논문들은 대체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향을 띠고 있어 이제 우리 연구가 교류에 대한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접근 단계를 넘어 내면적인 변화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시점에 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차후 이와 관련된 더욱 치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

5. 일상과 여성이라는 주제

역사학계의 관심이 정치사와 경제사에서 생활사로 이동하고, 한문학의 관심이 어떤 작품의 문학성을 밝히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그 사람이 향유했던 구체적 삶과 문화의 실상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확대되자, 개인들의 일상과 생활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 왕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교체와 암투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왕은 언제 일어나서 무얼 먹고, 어떤 책을 읽었으며, 잠은 몇 시간 잤는가 하는 것들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일상사와 생활사라는 말들이 학계에 처음

사용될 즈음에는 그런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것이 공부도 아니고 학문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일상적 행위와 삶의 편린들이 더욱 상세하고 명료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

『대동한문학』이 기획주제로 “사대부의 일상”을 택한 것은 한문학 분야에서도 오래 전부터 불어온 이런 일상과 생활에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리라.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자 하루하루의 일상을 가장 꾸밈없이 보여주는 일기류 자료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관심이 없으면 안보이던 것이 관심을 가지는 순간 눈에 크게 들어온다. 그렇게 발견한 자료들이 1600여종이라고 일기 자료 조사를 총괄했던 황위주¹⁰⁾는 말한다. 참으로 방대한 양의 일기들이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일기를 통해 “사대부들의 관직 생활”을 재구성하고,¹¹⁾ “조선시대 妓女의 立役”을 살펴볼 수도 있다.¹²⁾ 또한 ‘考終日記’를 통해 “죽음을 맞는 한 선비의 日常”을 엿볼 수도 있다.¹³⁾ 일기라는 가장 私적인 통로를 통해 옛 사람들의 작은 일상을 확인하는 순간, 한문학은 고리타분한 것도 아니고, 사대부들의 삶이 엄숙하거나 검소하기만한 것도 아니다. 이종목이 번역한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에서 엿볼 수 있는 이듯, 규모 있는 사대부가의 집들은 운치 있는 조경과 고동서화의 예술품들로 가득차 있다.

물론 이전 연구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일상’과 ‘생활’ 자료들까지 파고들 연구 역량이 부족하기도 했을 뿐더러, 특정한 이념적 평가 속에서 상류층의 富華한 일상의 모습이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했던 것이다. 현재 一群의 연구자들은 이전 시기의 편중된 시각에서 벗어나 우선 전통시대 각 계급·계층의 다양한 삶 자체를 투명하게

10) 황위주,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265면. 이 밖에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에서 보다 상세히 조선 시대 일기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11) 황재문, 「사환일기와 관직생활」,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12) 이성임,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妓女의 立役과 運用」,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13) 오용원, 「考終日記와 죽음을 맞는 한 선비의 日常」,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일차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들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저택에 살거나 妓女들과 관련된 遊樂을 즐기는 사대부들의 일상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그러한 생활의 구체적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재구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한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알아왔던 전통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세부적으로 밝혀 당대인들의 삶과 정서를 사실 그대로 실감하고자 하는 한문학과 생활사 연구자들의 노력을 사소하다고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소소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밝히는 자료를 발굴해서 번역 소개하는 것과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작업은 또한 별개의 일이니, 더욱 더 많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연구자들이 새롭게 발견된 저생활사 자료들을 재료로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여성’ 혹은 ‘여성’이란 주제는 오랜 역사시기 동안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된 부분으로, 남성 중심의 한문학 연구 영역에서도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다행히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가 생긴 이후, 고전문학분야에서 ‘여성’은 예전과 달리 지속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만약 고전문학을 매개로 한 여성 연구가 구태의연한 烈女傳 연구의 논조처럼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아픔과 슬픔만을 부각하고, 동시에 당대의 지배자인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서 적대시하거나 죄악시켰다면 대다수 ‘남성’ 연구자들의 호응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는 창간호부터 남성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할 만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폭넓은 기획을 시도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왔는데,¹⁴⁾ 이제 그 시각을 더욱 확대해서 작년에는 여성의 삶을 ‘소외’시키는 사회적 장치들인 ‘법과 제도’를 탐구했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法典’·‘檢案’·‘대하소설’ 등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활용하여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전통 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와, 여성을 둘러싼 제도적 폭력을

14)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는 2000년 10월에 창간된 이후, “동아시아의 고전여성문학”(2001), “문학에서의 화자와 여성”(2002), “여성 생활과 여성 문화”·“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과 고전여성문학”(2003), “근대 전환기 여성담론”(2004),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2005), “이미지와 표상으로서 여성성의 형성과 재구”(2006), “모성 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역사의 허구화 과정과 젠더-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2007), “여성과 법, 제도”(2009)라는 기획 특집을 마련한 바 있다.

살피고 있다.¹⁵⁾

한편, 작년에 출간된 강명관의 『열녀의 탄생』은 저자가 말한 대로 그 주제가 “남성-양반들에 의한 여성의 대뇌 바꾸기”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와 서적에 의해 의식화되는 철저히 피동적인 대상으로 여성을 그리고 있어서, 이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성 연구자들도 있었다.¹⁶⁾ 하지만, 남성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여성’의 탄생이,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화 시스템’ 속에서 가능했다는 이 논지의 진정한 의의는 ‘여성’에 대한 탐구가 단지 ‘여성’만이 겪고 있는 고립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님을 비교적 선명하게 환기시킨 점이다. ‘지배자’인 ‘양반 남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면까지 종속당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모습은 또한 당대 조선사회의 또 다른 피억압계층으로 ‘신분제’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서 순응적으로 살아왔던 ‘노비’·‘중인’·‘서얼’ 계층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의식화가 전사회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수 백 년 동안 ‘신분제’라는 거대한 억압 장치가 공고하게 지속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저자도 이미 말하고 있듯 ‘여성’이 ‘지배층 남성’에 순응하는 종속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이유를, 단지 ‘서적을 통한 의식화’ 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화 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없었을 리 없다. 자신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불충분함과 분명한 한계점들을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후속 연구자들은 저자가 마련해 놓은 풍부한 자료와 그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위에서 ‘여성’을 매개로, 단지 여성 뿐 아니라 ‘신분제’라는 거대한 억압 기제 속에서 살아왔던 ‘사회적 약자’들의 ‘자기 위안’

15) 김난옥, 「고려 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 -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김은아, 「조선 전기 여성의 법적 지위」; 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 - 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백옥경,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 경상도 지역의 <檢案>을 중심으로」;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 중통, 입후를 중심으로」, (※ 以上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6) 강명관의 『열녀의 탄생』 출간 후, 여성 연구자들이 ‘서평’과 ‘논문’의 형식으로 여성이 지배층 양반 남성에 의해 피동적으로 의식화되는 측면만이 단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지양, 「열녀의 탄생과 그 해부」, 『민족문학사연구』 제40호, 2009. 이경하,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재고 - 열녀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5호, 2009.

혹은 ‘자기 해방’의 전략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진전된 논의를 가져오는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6. 결론

필자는 이제까지 2009년에 출간된 서적과 논문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에 한문학 연구자들이 고심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참고 문헌에 제시한 목록을 보면 간단히 알 수 있겠지만, 한 해 동안에 생산되는 한문학 연구의 성과물은 이미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방대하다. 따라서 필자는 주로 연구 기획물의 주제와 그에 속한 논문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의 연구를 진단하고, 연구의 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획물에 속하지 못한 다수의 논문들을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다.

하지만, 연구자 스스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문제라면, 생각이 축적되어 논문으로 외화된 후 다시 관련 논문들이 일정한 주제로 묶여 단행본의 형태로 그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터이니, 또 다른 시간과 지면을 통해 주목을 받거나 독자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리라 생각된다. 오히려 필자가 이 많은 한문학 분야의 논문과 서적들을 走馬看山하듯 허겁지겁 읽으며 들었던 생각은 매년 쏟아지는 허다한 연구물 중에 과연 그 글을 읽는 일반 독자와 연구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공부하고 싶도록 자극을 주는 연구물들이 몇이나 될까하는 것이었다. 한문학 연구자가 더욱 많아지고, 그에 따라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해마다 집적되는 논문이 양적으로 풍부해지는 것은 분명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여전히 다수의 한문학 연구물들이 자기만의 ‘개성적 시각’이나 ‘독자적인 문제의식’ 없이 그저 漢詩와 漢文을 번역·소개하는 것만으로 안이하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동아시아 차원의 연구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한국의 연구자들은 ‘한국 한문학’의 독자적인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더욱 분발하지 않을 수 없다.

각자의 長處를 잘 살려서 한편으로는 충실한 ‘서지·목록·해제’와 ‘번역·주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한문 자료들을 이웃 중국과 일본에 적극적으로 소개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한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동아시아 국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구 방향과 지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1) 번역/역주/평설

- 김혈조 역, 『열하일기』, 돌베개, 2009.
- 박희병 역, 『골목길 나의 집』, 돌베개, 2009.
- 박희병 평설, 『저항과 아만』, 돌베개, 2009.
- 박희병 · 정길수 · 박경남 · 강국주 · 김하라 · 최지너 · 김수영 공역, 『연암산문정독』
2, 돌베개, 2009.
- 백승호 · 장유승 공역, 『정조어찰첩』, 성균관대 출판부, 2009.
- 송재소 · 유홍준 · 정해림 · 조창록 · 노승석 · 이규필 공역, 『한국의 차 문화 천년』
1 · 2, 돌베개, 2009.
-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이십일도회고서』, 푸른역사, 2009.
- 심경호, 『내면기행』, 이가서, 2009.
- 안대회, 『부족해도 넉넉하다』, 김영사, 2009.
- 유재영 · 권면주 · 유승섭 공역, 『東律類聚』, 박이정, 2009.
- 이가환 저, 조남권 역, 『이가환 시전집』, 소명출판 2009.
- 이동재 역, 『매계집』, 평사리, 2009.
- 이상하 역, 『玉潭私集』, 소명출판, 2009.
- 이상하 역, 『玉潭遺稿』, 소명출판, 2009.
- 이장우 · 장세후 역, 『퇴계잡영』, 연암서가, 2009.
- 이종목 역,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9.
- 이혜순 · 남은경 편역, 『친손은 어느 곳에서 노닐고 계시는고』, 소명출판, 2009.
- 이희목 편, 『식민지시기 한시자료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정 민 역, 『석주집』, 태학사, 2009.
- 정 민 편역, 『성대중 처세어록』, 푸르메, 2009.
- 허경진 역, 『한객인상필화』, 지만지, 2009.

(2) 연구서

- 강명관, 『사라진 서울』, 푸른역사, 2009.
-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 김진균, 『漢文學과 近代 轉換期』, 다운샘, 2009.
- 김풍기, 『조선 지식인의 서가를 탐하다』, 푸르메, 2009.

- 류성준, 『新羅와 渤海 漢詩의 唐詩論的 考察』, 푸른사상, 2009.
 신익철 외 10인, 『조선 후기 한문학과 중국문학』, 소명출판, 2009.
 이재연구소 편, 『頤齋 黃胤錫의 학문과 사상』, 경인문화사, 2009.
 이종묵, 『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
 임채명, 『신광한의 삶과 한시』, 한국학술정보, 2009.
 임형택, 『문명의식과 실학』, 돌베개, 2009.
 정요일, 『한문학의 논리』, 일조각, 2009.
 주승택, 『한문학과 근대문학』, 태학사, 2009.
 차용주, 『韓國漢文學作家研究』 1, 아세아문화사, 2009.

2. 학위논문

(1) 박사논문

- 권경록,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문학지리 연구: 양근·여주·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009.
 김광성, 「金陵 南公轍 산문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9.
 김새미오, 「淵泉 洪奭周 산문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9.
 김윤섭, 「金時習 불교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9.
 김재욱, 「牧隱 李穡의 詠物詩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9.
 김채식,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9.
 노승석, 「<亂中日記>의 교감학적 검토: 그 정본화를 위하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9.
 목진숙, 「화인 김수돈 문학 연구」, 창원대 박사논문, 2009.
 박경남, 「俞漢雋의 道文分離論과 산문 세계」, 서울대 박사논문, 2009.
 박동주, 「조선후기 原體散文의 특성과 작품양상」, 한양대 박사논문, 2009.
 박세인, 「睡隱 姜沆의 시문학 연구: 내상의 표출 양상과 치유적 형상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2009.
 박 탄, 「일본 수신사의 사행록 연구」, 강원대 박사논문, 2009.
 배기표, 「秋琴 姜瑋의 해외기행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9.
 안세현, 「조선중기 누정기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9.
 이재숙, 「容齋 李荇의 한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9.
 이재일, 「李滉의 자연시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9.
 이현지, 「성종·연산군대 왕실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9.
 조동영, 「正祖 시문학의 일고찰」,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9.

- 조정윤, 「張維 산문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9.
 진예숙, 「陽村 權近의 《詩淺見錄》연구」, 공주대 박사논문, 2009.
 최서임, 「姜希顔의 문학 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2009.
 최성엽, 「弘齋 李祿의 文學論과 右文政策의 實相」, 원광대 박사논문, 2009.
 함영대, 「성호학파의 《맹자》해석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9.

(2) 석사논문

- 강혜중, 「《欽欽新書》의 구성과 서술방식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9.
 광귀남, 「佔畢齋 樂府詩에 형성된 風教 의식 연구」, 창원대 석사논문, 2009.
 권기진, 「柳得恭 산문에 나타난 의식세계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9.
 김민석, 「隱峯 安邦俊의 史家的 意識」, 경상대 석사논문, 2009.
 김보성, 「象村 申欽과 前後七子 批評의 비교 연구: 《晴窓軟談》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9.
 김세호, 「《秋江冷話》의 작가의식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9.
 김순희, 「草廬 李惟泰의 庭訓 研究」, 공주대 석사논문, 2009.
 김영미, 「茶山의 시문에 나타난 불교 이해」, 고려대 석사논문, 2009.
 김용주, 「村隱 劉希慶 한시 연구」, 안동대 석사논문, 2009.
 김윤미, 「西河 林椿의 시세계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9.
 김은숙, 「碩齋 尹行恂의 著作과 학문 경향」, 계명대 석사논문, 2009.
 김현정, 「崔鳴吉 疏筭의 서술기법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9.
 남승희, 「沈澹 洪吉周의 《睡餘三筆》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09.
 문창호, 「九龍齋 白鳳來의 《四書通理》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09.
 박문규, 「草衣의 儒佛會通的 詩世界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2009.
 박미영, 「梅泉 詩의 일 국면: 회고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9.
 박성호, 「久堂 朴長遠의 시세계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9.
 박재홍, 「金時習 문학에 나타난 역사인물의 형상화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9.
 박종순, 「금화 이지백의 시문학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2009.
 박채영, 「玄川 元重擧의 통신사행록 연구: 《승사록》과 《화국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9.
 방미옥, 「茶山 丁若鏞의 '傳' 연구: 새로운 인물형 구현」, 전북대 석사논문, 2009.
 손강영, 「存齋 魏伯珪의 說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9.
 손영희, 「뇌연 남유용의 문학관과 시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2009.
 송현자, 「대산 이상정의 시세계 연구」, 안동대 석사논문, 2009.
 심동섭, 「창주 허돈의 생애와 한시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2009.
 양세정, 「窮悟 任天常의 산문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9.

- 엄보성, 「김시습 《매월당전집》에 나타난 불교인식」,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9.
- 오효진, 「약산 오광운의 시세계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9.
- 우성준, 「하봉 조호래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9.
- 원주연, 「박죽서 한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2009.
- 윤금옥, 「正祖 예악정책과 그 의미」, 충남대 석사논문, 2009.
- 윤수진, 「치암 송길의 한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9.
- 이강훈, 「忠武公 李舜臣의 충효사상에 관한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2009.
- 이경근, 「혜환 이용후의 문예론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9.
- 이선자, 「《인현왕후전》의 형성과정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9.
- 이성우, 「여말선초 잠명연구: 목은 이색 그룹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2009.
- 이숙희, 「김홍도 회화속의 제화시·발문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2009.
- 이슬이, 「남·북한 문학사에서 본 실학과 문학의 평가」, 원광대 석사논문, 2009.
- 이은희, 「대은 변안열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9.
- 이정현, 「원천 홍우건의 문학론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09.
- 이혜원, 「명고 임진의 시세계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9.
- 임승현, 「몽예 남극관의 문학의식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9.
- 전지혜, 「옥호 이조원의 생애와 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9.
- 정세현, 「《경학원잡지》를 통해 본 하정 여규형의 현실대응양상」, 경상대 석사논문, 2009.
- 정영민, 「미암 유희춘의 경연활동 연구: 《미암일기》에 나타난 경연활동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2009.
- 정 훈, 「興猶堂 말년 시에 나타난 상제천 사상」, 연세대 석사논문, 2009.
- 조용기, 「용헌 이원의 시문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9.
- 조현영, 「李德懋 산문의 眞情論과 기의 풍격」, 한양대 석사논문, 2009.
- 하정원, 「석릉 김창희 산문 비평 연구: 《회혼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9.
- 황수환, 「秋史 金正喜의 사상과 秋史體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9.
- 황하준, 「화서 이항로 한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9.

3. 학술지 논문

- 강구울, 適菴 曹伸 漢詩의 '昨非·今是'의 詩世界,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강동석, 고려후기 自然觀의 변모 양상에 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3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강명관, 「전근대 문학에 있어서 생활과 문학의 交織」,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 _____, 「조선후기 기녀제도의 변화와 京妓」,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강명혜, 「《해관자집》에 투영된 북한강의 특성 및 물 원형상징과의 상관성」, 『은지논총』 23, 은지학회, 2009.
- 강민구, 「조선 후기 類書의 變改 樣相 <松南雜識>의 경우」,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李奎報의 疾病에 대한 意識과 文學적 표현」, 『동방한문학』 40, 동방한문학회, 2009.
- 강석근, 「虛應堂 普雨의 詩에 나타난 日常과 禪趣」, 『은지논총』 22, 은지학회, 2009.
- 강석중, 「晦隱 南鶴鳴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강영주, 「벽초의 <임격정>과 연암 문학의 비교 고찰」, 『대동문화연구』 6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강정화, 「16세기 遺逸의 方外人的 性向에 관한 고찰」,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智異山 遊山詩에 나타난 名勝의 文學的 形象化」,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강현경, 「林沔浩의 <陳玄傳>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60집, 어문연구학회, 2009.
- 강혜규, 「丁侍者傳의 주제의식: 息影菴의 사물인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9집, 국문학회, 2009.
- 강혜선·김동준, 「器物銘에 투영된 사대부의 미의식 -생활용품 관련 기물명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高雲基, 「일연의 균형으로서 글쓰기: 삼국유사 서술방법 연구 1」, 『열상고전연구』 30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곽미선, 「김택영의 한시를 통해 본 망명 전후 의식세계의 변모」, 『열상고전연구』 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구본현, 「老稼齋 金昌業 漢詩 研究」,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_____, 「글자의 變改에 따른 漢詩 해석의 변화 양상」,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_____, 「用事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검토」, 『국문학연구』 19집, 국문학회, 2009.

- _____, 「2008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국문학연구』 20집, 국문학회, 2009.
- 구사희, 「《刊誤精選》의 찬술 과정과 비평적 특성」, 『국어국문학』 152집, 국어국문학회, 2009.
- 구영진, 「12차 통신사 필답집의 특징 - 對禮餘藻의 주자학 담론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권문봉, 「栗谷 ‘誠論’의 教育的 의미 고찰」,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권순열, 「옥봉 백광훈 연구」, 『고시가연구』 2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 권오영, 「19세기의 嶺南 學界와 면宇 郭鍾錫의 理學」,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권정원, 「湛軒 洪大容의 學問觀」,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김경호·류준필·이영호, 「韓國儒學資料의 匯集과 電算化 - ‘한국경학자료시스템’과 ‘한국주자학용어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金垓亨,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金喆凡, 「三元堂 허원식의 삶과 현실인식」,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김진근, 「高麗時代 耆老會 研究 高麗時代 耆老會 研究」,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김경미, 「조선후기 서울지역의 문학과 도시문화사: 서울의 유교적 공간 해체와 섹슈얼리티의 공간화 - 19세기 소설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 김기중, 「〈釋迦如來行蹟頌〉의 구조와 주제의식」, 『어문연구』 제62집, 어문연구학회, 2009.
- 김난옥, 「고려 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 -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김남기, 「三淵 金昌翁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_____, 「조선의 출판과 관련된 국왕의 시문 연구」,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김남형, 「〈星湖先生言行錄〉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3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 김대중, 「‘작은 존재’에 대한 星湖 李瀼의 ‘감성적 인식」, 『대동문화연구』 6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_____, 「성호 이익 - 냉정한 우호의 정치학」,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김덕수, 「寧齊 李建昌의 漢詩 批評 研究 - 《雲山韶濩堂詩選》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김동준, 「俛宇 郭鍾錫의 漢詩에 부조된 智異山의 形象」, 『남명학연구』 2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김동준, 「李奎象의 <世界說> 다시 읽기」, 『문헌과 해석』 46호, 문헌과해석사, 2009 봄.
- , 「疾病 소재에 대처하는 韓國漢詩의 몇 국면」, 『고전과 해석』 6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 金文京, 「高麗本 孝行錄과 中國의 <二十四孝>」, 『한국문화』 제45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戶 체험과 그 의미」,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김봉남, 「茶山 제자 李時憲의 詩文에 관한 一研究」,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김상홍, 「茶山의 사상과 公職倫理 연구」, 『한문교육연구』 3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 「茶山의 蘇轍論」,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김석태, 「佛家 寺刹題詠詩의 문학적 지향」, 『고시가연구』 23, 한국고시가학회, 2009.
- 김선기, 「洪萬宗의 長歌 論評文 考察」, 『어문연구』 제61집, 어문연구학회, 2009.
- 김성룡, 「박제가 기행문의 문예 미학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 「조선 후기 문예 미학의 문학 사상사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김성수, 「《論語》의 言語認識과 話法教育的意味」, 『한문교육연구』 3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 「신채호의 영웅 전기와 근대적 글씨기 기획 - 《을지문덕》의 글쓰기방식 재검토」, 『민족문화사연구』 41,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 김성연, 「農巖 金昌協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 「한국 漢詩에 나타난 길의 상상력」,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김순남, 「조선 成宗代의 建州三衛」,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제작 기반 연구」, 『민족문화연구』 51,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9.
- 김연중, 「茶山 論語說의 梗概와 그 精髓에 대하여 - 茶山의 “予所否者, 天厭之” 解」,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김연중, 「丁茶山の 朱子 《論語集註》 6」, 『한문교육연구』 3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김영봉, 「二樂亭 申用漑의 시문학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김영숙, 蠹窩 崔興璧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학논집』 3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 김영옥, 「규장각본 《廣寒樓記》 詩詞를 통해 본 중국 문학 수용 양상」,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김영주, 「假山 소개 작품에 나타난 조선조 문인의 價値論的 玩賞 態度」,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 「梅窩 安重觀의 文學論 研究 散文理論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0, 동방한문학회, 2009.
- 김영죽, 「秋齋 趙秀三의 竹枝詞類 創作에 대한 一考察」,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김영진, 鄭遂榮의 《之又齋詩稿》, 『고전과 해석』 6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9.
- , 「여향 시인 金洛瑞의 《好古齋集》」, 『고전과 해석』 7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9.
- , 「西山 丁學淵과 杜陵詩社」, 『문헌과 해석』 47호, 문헌과해석사, 2009 여름.
- 김영호, 「玄默子 洪萬宗의 新發見 著述에 관하여 - 홍만중 文集 《覆瓿藁》의 諸 著書 序文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2009.
- 김영희, 「〈머느리-단혈〉의 연행과 젠더화 기획에의 동화와 탈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 김옥금, 「雜劇 <金線池>에 나타난 韓輔臣의 意識世界 考察」,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2009.
- 김용남, 이상수의 俗離山遊記에 드러나는 議論의 강화와 그 특징,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김용태, 「1790년 柳得恭이 만난 동아시아 - <熱河紀行詩註>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 「虛白亭 洪貴達과 초기사립과」,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 「李卓吾贊」 다시 읽기, 『문헌과 해석』 49호, 문헌과해석사, 2009 겨울.
- 김윤조, 「靑泉 申維翰의 門人들과 그 문학적 성향」, 『한국학논집』 3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 김윤희, 동양 담론 그리고 주권·정부·인민 관계의 균열과 전복 - '政合邦' 청원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김은아, 「조선 전기 여성의 법적 지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김은정, 「申翊聖의 東淮 別墅」, 『고전문학연구』 36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 _____, 「玄洲 尹新之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_____, 「李景嚴의 斜川庄 경영과 <斜川詩帖>의 의미 재론」, 『국문학연구』 19집, 국문학회, 2009.
- 김익재, 「藍溪 表沿沫의 學問性向과 現實對應」,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김인규, 「弘齋 正祖의 學問觀」, 『온지논총』 23, 온지학회, 2009.
- 김재홍·신진숙, 「만해 사상과 양계초의 <新民說>에 나타난 '마음'의 의미」, 『국어국문학』 152집, 국어국문학회, 2009.
- 김중서, 「蓀谷 李達의 樂府詩 受容과 美的 成就」,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玉峯集>서문에 보이는 白光勳의 문예인식」, 『한문학논집』 29, 근역한문학회, 2009.
- 김종철, 「漢文文類 '論'의 立論形式」,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김주순, 「尹善道の 自然詩歌와 陶淵明 詩의 비교문학적 고찰」,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蘆溪 朴仁老 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受容樣相」, 『고시가연구』 23, 한국고시가학회, 2009.
- 김준형, 「<青城雜記>를 통해 본 거지와 거지 이야기」, 『민족문학사연구』 40,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 _____, 「단재 신채호의 글쓰기와 소설 - 고전소설과 1910년대 단재 소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1,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 _____, 「조선후기 사치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국문학연구』 20집, 국문학회, 2009.
- 김진영, 「佛敎敍事의 作話方式과 傳奇小說의 II」, 『어문연구』 제61집, 어문연구학회, 2009.
- 김진욱, 「傳統과 近代, 意識과 無意識의 境界點 <園植十五詠> 研究」, 『고시가연구』 24, 한국고시가학회, 2009.
- 김채식, 「이규경의 牛腹洞 변증에 대한 고찰」,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김철범, 「조선후기 古文選集의 편찬·간행과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김태영, 「潘溪 柳馨遠의 變法論의 實學風」,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김현미, 「정재 유치명의 여성형상 - 정재집 소재 여성관련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김현옥, 「正祖의 人材觀 研究 - <策問>을 中心으로」, 『한문학논집』 28, 근역한문학회, 2009.
- 김현주, 「澤堂 李植의 格物詩 研究」, 『한문교육연구』 3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김혈조, 「《熱河日記》를 통해서 본 燕行 사신의 의식주 생활」,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 「한문 고전의 대중화 방안 모색」,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 김형술, 「鳴巖 李海朝의 시문학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김형태, 「<桑韓醫談>과 <桑韓醫問答> 비교연구 - 대화 방식 및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김홍백, 「李匡師의 아내 哀悼文에 나타난 形式美와 그 의미」, 『규장각』 제35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 남영진, 「19세기 시학상의 由陸入社와 由蘇入社論」,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남은경, 「한시 속에 나타난 고구려 여성 - 조선후기 《해동악부》에 나타난 고구려 여성 형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남춘우, 「息山 李萬敷의 <格物說>고찰」,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 노승석, 「《亂中日記》 草稿本와 異本 校勘 研究」,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류호진, 「李胄의 唐風志向과 그 文學史的意味」,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李時燦, 「宋元時期 高麗의 서적 수입과 그 역사적 의미」,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맹영일, 「三宜堂 金氏의 漢詩 研究」,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명평자, 「이승휴의 《賓王錄》 연구」, 『한문학논집』 28, 근역한문학회, 2009.

- 박경남, 「16·17세기 程朱學的 道文一致論의 균열과 道文分離의 경향」,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 _____, 「俞漢雋의 老莊思想 수용과 타자와의 疏通」, 『동양철학연구』 58권, 동양철학연구회, 2009.
- 박기석, 「한양 도시문화의 공간적 배경과 문학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박대현, 「漢文書札의 格式 考察」,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 박동욱, 「竹隔 吳澣의 생애와 내면 의식」,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2009.
- 박명희, 「許筠의 비평자료에 나타난 호남문인의 實狀」,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靑溪 梁大樸의 산수 遊覽과 시적 표현」, 『고시가연구』 2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 박병익, 「朝鮮朝의 西崑體 수용과 창작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霞川 高雲의 문학에 나타난 思惟」, 『고시가연구』 2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 박상영, 「東谿 趙龜命의 肉體的 疾苦와 現實 超克」, 『고전과 해석』 6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 박성규, 「高麗前期 文學에 나타난 도가적 상상력」, 『한문교육연구』 3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_____, 「한국한문학과 바다」,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韓國漢文學과 中國」,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박수밀, 「한문산문의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 고찰」,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2009.
- _____, 「맥락으로 본 <一夜九渡河記>의 구성 전략」, 『온지논총』 23, 온지학회, 2009.
- 박수천, 「《小華詩評》의 批評樣相」,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_____, 「柳下 洪世泰의 詩文學」,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박애경, 「서도소리의 서울 유입과 도시문화로의 전환」,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 박영국,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조선 후기 智異山의 다양한 涵意」,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박우훈, 「俛宇 郭鍾錫의 傳에 對하여」, 『남명학연구』 2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박은정, 「寧齋 李建昌, 사마천의 마음을 읽다」, 『문헌과 해석』 49호, 문헌과해석사, 2009 겨울.

- 박일용, 「〈玉匣夜話〉 ‘서두 이야기’의 서사 전략과 문제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박중훈, 洪原 妓女 趙生 관련 一考,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冷齋 柳得恭의 초기 詩 考察 - 《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2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 박준원, 「《洙泗考信錄》의 《史記》 비판 - 공자의 事蹟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박철상, 「새로 발굴한 《正祖御札帖》의 資料的 價値」,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박향란, 「《熱河日記》 筆談에 포착된 淸朝 지식인의 형상과 의미」,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문학적 구성을 통해 본 乾淨동筆談의 意義」, 『동방한문학』 40, 동방한문학회, 2009.
- 박현규, 「중국 지역 한국학 고문헌 정리 현황과 수집 방향」,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_____, 「賀平蜀使 시기 鄭夢周의 行蹟과 作品考」,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박혜숙, 「정약용의 〈老人一快事〉와 노년의 양식」, 『민족문학사연구』 41,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제47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 배수찬, 「고전산문교육 연구의 반성과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배종석, 「《集聯》 통해 본 梅泉의 學詩傾向」, 『열상고전연구』 30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_____, 「修堂 李南珪의 주제적 대의의식과 시」, 『한문학논집』 29, 근역한문학회, 2009.
- 백민자, 「允摯堂 文學의 近代性 認識에 대한 再考」, 『어문연구』 제61집, 어문연구학회, 2009.
- 백승호, 「새로 발굴한 정조어찰첩의 내용 개관」,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_____, 「蒼雪齋 權斗經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_____, 「간찰을 통해서 살펴본 정학연의 삶」, 『문헌과 해석』 47호, 문헌과해석사,

2009 여름.

- 백옥경,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 경상도 지역의 <檢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백원철, 「한말~일제초기 지방유생의 배일의식과 저항행동의 양상 醒菴 李喆營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백진우, 「漢文 野談文學 속 論評의 樣相과 機能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6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 복대형, 「《左傳》條에 대한 考察 - 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9, 근역한문학회, 2009.
- 서동일, 「1896년 郭鍾錫의 布告天下文 발송 경위」, 『남명학연구』 2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서정화, 「李齊賢 산문의 수사 기법 연구」, 『동양한문학회』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서한석, 「金奭準과 《孝里齋逸集》에 대하여」,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_____, 「李恒福의 《朝天錄》에 관한 小考」, 『한문교육연구』 3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설석규, 「侁宇 郭鍾錫의 政治哲學과 國權恢復 방향」,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손병국, 「李鈺 文學의 文學史的 意味」,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2009.
- 손유경, 「企齋 申光漢의 意識世界에 대한 一考察 - 邵雍 欽慕 樣相을 中心으로」, 『한문학논집』 29, 근역한문학회, 2009.
- 손혜리, 「成琬의 《日東錄》 연구」, 『한국실학연구』 17, 한국실학회, 2009.
- 송병렬, 「디지털 시대, 漢文教育의 代案 탐색」,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 송혁기, 「신유한 산문의 일고찰: 記事의 文學성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 _____, 「조선시대 문학비평에 나타난 記事의 事實성과 文學성」,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연암문학의 발견과 실학의 지적 상상력」,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회, 2009.
- 송호빈, 「燕巖의 산문에 나타난 울음에 대한 관찰과 사유」, 『동양한문학회』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송희경, 「연못이 있는 정원 - 조선후기 園林書의 유형과 그 함의」,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2009.

신두환, 「茶山の 유배 漢詩에 나타난 屈騷의 美의식」, 『한문학논집』 28, 근역한문학회, 2009.

신로사, 「일본 多胡碑의 조선 전파에 관한 연구의 보론」, 『문헌과 해석』 46호, 문헌과해석사, 2009 봄.

신상필, 「사실의 기록과 ‘傳’ 양식의 새로운 가능성」,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신승훈, 「朝鮮末 嶺南 知識人의 文에 대한 認識 - 晩醒 朴致馥과 侁宇 郭鍾錫의 文學論爭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_____, 「侁宇 郭鍾錫의 文學思想 一考」,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신영주, 「《韓文吐釋》에 나타난 윤근수와 최립의 현토 담론에 관하여」,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신은경, 「丁若鏞의 《滄行日記》 연구」, 『국어국문학』 153집, 국어국문학회, 2009.

신익철, 「申景濬의 국토지리관과 船舶에 대한 인식」,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_____, 「정학연 시집의 현황과 시세계의 특징」, 『문헌과 해석』 47호, 문헌과해석사, 2009 여름.

신지원, 「당호를 통해서 본 19세기초 소동과 관련 서화 소장 문화와 대청 문화 교류」, 『한국문화』 제45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심경호, 「글로벌시대 한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_____, 「柳禧의 한문문학에 나타난 통속성」,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_____, 「申維翰의 통섭적 사유방법과 문학세계」, 『한문학논집』 28, 근역한문학회, 2009.

_____, 「사주당 이씨의 삶과 학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_____, 「상량문의 문학성 시론」,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안나미, 「17세기초 公安派 문인과 朝鮮 문인의 교유 - 丘坦과 李廷龜의 관계양상」,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안대회, 「21세기 사회변동과 한국 한문학 연구의 방향」,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_____, 「〈城市全圖詩〉와 18세기 서울의 풍경」,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_____, 「城市全圖詩 9종」, 『문헌과 해석』 46호, 문헌과해석사, 2009 봄.

- _____, 「御札帖으로 본 正祖의 인간적 면모」,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_____, 「申櫛의 삶과 시세계」, 『문헌과 해석』 48호, 문헌과해석사, 2009 가을.
- 안득용, 柳夢寅 散文에 나타난 悲劇性,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金昌翁의 說에 나타난 주제의식과 글쓰기,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09.
- 안병걸, 「星湖 李瀼의 퇴계와 영남에 대한 관심 - 權相一과의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안상우·권오민·이준규, 「崔漢綺의 《身機踐驗》을 읽는 또 하나의 독법」,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안세현, 「15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성리학적 사유의 우연적 표현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51,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9.
- 안세현·임영란, 「鄭球 著, 《乖隱遺稿》 卷9-10 발굴 소개」, 『고전과 해석』 7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 안순태, 「南公轍 文學觀의 變移 樣相에 대한 研究」, 『한문교육연구』 3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엄태웅, 「연행 체험에 나타난 기억의 변모 양상 - <무오연행록>과 <연행가>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여운필, 「希菴 蔡彭胤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염정섭, 「《林園經濟志》 <本利志>의 農政改善論」,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2009.
- 오용원, 「寒洲 李震相의 詩文學 研究」,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_____, 「考終日記와 죽음을 맞는 한 선비의 日常」,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우지영, 擬作의 창작 동기와 창작 양상에 대한 一考 - 韓信 소재 擬作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원주용, 「稼亭 李穀의 記에 관한 考察」, 『동방한문학』 40, 동방한문학회, 2009.
- 유호진, 「許筠의 艷情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윤승준, 「訥隱 李光庭의 우연 창작 방식 - 《亡羊錄》 소재 창작우연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윤인현, 「韓國 漢詩에 나타난 ‘바다’ 소재와 주제」,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한국 詩歌論에서의 詩 이론의 영향」,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海行摠載 所載 일본 기행시 考察」,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윤재환, 「《三唐集》을 통해 본 조선 중기 문인들의 이별 그리고 그리움의 변주」, 『고전과 해석』 7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9.
- _____, 「《松堂集》을 통해 본 松堂 趙凌의 삶과 詩世界」, 『동방한문학』 40,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湖洲 蔡裕後의 詩에 나타난 술의 技能과 限界」,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윤지훈, 삼고 安錫徹의 記錄精神과 《金永哲傳》,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安錫徹의 思惟方式과 經世論에 관한 一考」,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澤堂 李植의 《大家意選批評》과 散文創作의 實際」, 『한문학논집』 29, 근역한문학회, 2009.
- 윤채근, 「허균 傳에 나타난 不穩한 인간상의 문제 - 누아르적 세계의 등장과 타자의 서사」, 『한문학논집』 28, 근역한문학회, 2009.
- 윤호진, 「慕堂 洪履祥의 삶과 詩世界」,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윤호진, 「春溪 河琪鉉의 生涯와 詩世界 研究」,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이경수, 「息山 李萬敷의 청년기 시에 있어서의 隱逸 指向」,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이경숙, 「漢字構形要素로 본 敦煌寫本의 異體字 類型과 淵源, 그리고 그 特徵 敦煌 스타인본 妙法蓮華經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이경하,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재고 - 열녀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이구의, 「大峯 楊熙止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은지논총』 22, 은지학회, 2009.
- _____, 「濯纓 金駟孫의 시에 나타난 精神世界」,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이대형, 「成俔 記文의 關료문인적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이동재, 「扶溪 田秉淳의 生涯와 詩文學 一考」, 『한문교육연구』 3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李麗秋, 「한·중 기녀시인 金雲楚와 柳如是 비교연구 - 자의식을 중심으로」, 『열상

- 고전연구』 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이문기, 「文獻을 통한 安珣 관련 유적과 유물의 考證」,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이병찬, 「漢詩 聲律論과 《詩經》 樂譜의 相關性 研究」, 『어문연구』 제62집, 어문연구학회, 2009.
- , 「韓中詩經論의 편집비평 연구」, 『어문연구』 제59집, 어문연구학회, 2009.
- 李奉相, 「고려·조선 문인의 白居易에 대한 인식」,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이봉상, 「白居易 九老會와 그에 대한 고대 한국 문인의 인식」,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이상동, 「壽軒 李重慶의 詩世界 壽軒 李重慶의 詩世界」,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이상필, 「侁宇 郭鍾錫의 南冥學 繼承樣相」,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이상하, 「고전번역의 현실과 학제간 연계의 필요성」,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 , 「侁宇 郭鍾錫의 性理說 寒洲 성리설의 수용과 전파」,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이성임,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妓女의 立役과 運用」,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이성혜, 「20세기 초, 한국 서화가의 존재 방식과 양상 - 守巖 金有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이숙인, 「조선중기 사회의 여성인식」, 『한국문화』 제46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 이승수, 「고려말 對明 使行的 遼東半島 경로 고찰」,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이영호, 「侁宇 郭鍾錫의 논어학과 그 경학사적 위상」,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이윤석, 「《文字類輯》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이은영, 「士禍期 한 젊은 사대부의 肖像」,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이의강, 「侁宇 郭鍾錫의 漢詩의 人格美」,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이재숙, 「士禍期 관료문인의 形象과 漢詩史的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이종목, 「다전공 복합학문시대 한문학연구의 역할」,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 _____, 「17~18세기 中國에 전해진 朝鮮의 漢詩」, 『한국문화』 제45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 _____, 「회혼을 기념하는 잔치, 重牢宴」, 『문헌과 해석』 46호, 문헌과해석사, 2009 봄.
- _____, 「조선 선비가 바라는 아내의 상」, 『선비문화』 15, 2009.
- _____, 「아내의 역할-내조와 책선」, 『선비문화』 16, 2009.
- 이종문, 「高麗前期 漢文散文 作品의 現存 狀況과 그 意味에 關한 研究」,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_____, 「立巖二十八景의 位置에 關한 再檢討」, 『한국학논집』 3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 이종범, 「佔畢齋 金宗直의 內面世界와 初期 士林派」,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이종호, 「金壽增의 文藝志向과 家學傳受」,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 _____, 「金壽增의 유람의식과 은거의식」,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신유한의 문도와 고문사 교육」,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이준규, 「許穆 한시의 尙古의 성향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_____, 「許穆散文의 古文詞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이창현, 「방각소설 출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방각소설의 출판과 언어, 문화의 표준화」,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이철희, 「靈慧와 환상성에 대한 연암 박지원의 양면적 입장 <綠鸚鵡經序>에 담겨있는 비평적 의미(2)」,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18세기 한중 문학 교류와 유득공의 <二十一都壤古詩>」,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이춘희, 「19세기 朝鮮文人和 淸 常州派 후계문인의 交游」, 『한국문화』 제45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 _____, 「李尙迪의 <祝英臺近>」, 『문헌과 해석』 46호, 문헌과해석사, 2009 봄.
- 이학당, 「靑莊館 李德懋의 中國歷代作家批評樣相에 關한 考察」,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이향배, 「<批選龜峰先生詩集>의 批注 體例와 著者」, 『한문학논집』 29, 근역한문학회, 2009.

- 이현식, 《열하일기》의 <皇城記>, 청 왕조 정통론, 『국어국문학』 152집, 국어국문학회, 2009.
- 이현일,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이상적 여성상 - 申緯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이홍식, 「楚亭 朴濟家の 碑誌文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연암 박지원의 <綠鸚鵡經序> 다시 읽기」,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이효정, 「1884년 조선 사절단의 메이지 일본 체험」,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이희목, 「영재 <孟敏論>과 역사비평」, 『문헌과 해석』 49호, 문헌과해석사, 2009 겨울.
- 인권환, 中·韓·日 漢詩에 나타난 故郷意識 - 文人詩·僧侶詩의 對比를 兼하여, 『고전과 해석』 7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 임경화, 「志士와 文人, 정치와 문학 - 일본에서의 漢詩의 근대와 지식인」, 『대동문화연구』 6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임규완, 「僑窩 成涉의 생애와 저작, 학문경향」, 『한국학논집』 3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 임덕선, 「告成詩를 통해 본 <<月村集>>·『梨谷集』의 刊行過程」,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임미정, 「20세기 초 女訓書의 존재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임영길, 「心田 朴思浩의 <燕薊紀程>에 대한 일고찰」,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任完懃, 「筆記에서 事實의 意味」,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임원혁, 朝鮮前期 策文과 士의 世界 認識 - <殿策精粹>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임준철, 「畫像自贊類 문학의 존재양상과 자아형상화 방식의 특징」, 『고전문학연구』 36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임채명, 「朝日 文士의 눈에 비친 南海 그리고 玄海灘 - 주로 使行 관련 詩文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嶺南樓重修記>의 結構와 그 特性」,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問槎畸賞의 性格에 대하여 - 주로 批評者의 視角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_____, 嶺南樓記의 變貌 樣相 - 주로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8, 근역한문학회, 2009.
- _____, 「密陽 嶺南樓 詩의 樣相 - 주로 內容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임치균, 「〈태원지〉 연구」,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한·중·일 간의 지식교류 양상 - ‘이성적 대화’의 열림을 주목해서」,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_____,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장경남, 「신체호 역사전기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41,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 장병환, 「白雲 沈大允의 근대성 사유체계 일고찰 - 19세기 실학 정신과 근대성과의 관련성 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_____, 「退溪의 花潭學에 대한 反論 樣相 일고찰 - 퇴계의 答時甫書와 靜齋記> 분석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장선희, 「近代 이후 長城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고찰 詩社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23, 한국고시기문학학회, 2009.
- 장영희, 「〈高麗世宗〉 <編年通錄〉의 서사성 敘事性 研究」,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장유승, 「〈正祖御札帖〉의 사료적 성격 <承政院日記〉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_____, 「陶谷 李宜顯의 한시 비평론」,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_____, 「조선 후기 변경 지역 인식의 변모양상」,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장진성, 「조선 후기 미술과 <林園經濟志〉 - 조선 후기 古董書畫 수집 및 감상 현상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2009.
- 장진숙, 「茶山 贈言산문의 특징과 그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전병철, 「大山學派의 高山精舍 講會와 性理說 講論」,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지리산권 지식인의 마음 공부 - <神明畬圖銘〉 관련 남명학과 문학작품에 나타난 재해석의 면모와 시대적 의미」,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전재강, 「南冥 詩와 대비적 관점에서 본 寒岡 詩의 성격」, 『동방한문학』 41, 동방

한문학회, 2009.

- 전재동, 「17世紀 前半 嶺南 地域 經學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전혜영, 「藥山 吳光運의 《海東樂府》 연구」,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정 민, 표류신, 청하지 않은 손님 - 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探討,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藕船 李尙迪의 茶詩와 茶생활」, 『문헌과 해석』 46호, 문헌과해석사, 2009 봄.
- _____, 「1805년 丁學淵의 두류산 유람 시문」, 『문헌과 해석』 47호, 문헌과해석사, 2009.. 여름
- _____, 「申櫛의 《琴堂記珠》와 다산의 佚文」, 『문헌과 해석』 48호, 문헌과해석사, 2009 가을.
- 정경훈, 「《幄對說話》의 사실성과 의미」,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정권주, 「《靈寶局定靜篇》의 儒家的 受容과 實踐」, 『동방한문학』 40, 동방한문학회, 2009.
- 정만호, 「竹泉 趙最壽의 燕行錄과 對淸意識」, 『어문연구』 제59집, 어문연구학회, 2009.
- 정영문, 「국내 ‘通信使 길’에 나타난 地方公演文化의 樣相과 意味 考察」, 『열상고전연구』 30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정우락, 「寒岡 鄭述의 武屹精舍 建立과 著述活動」,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정우봉, 「조선후기 문예이론에 있어 趣 개념과 그 의미」,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_____, 「19세기 후반 대구지역 여성문인, 徐藍田의 생애와 문학」,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정우봉, 「조선시대 妓生 詩帖의 존재양상과 문화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 정은주, 「실학과 지식인의 물명에 대한 관심과 《物名類解》」, 『한국실학연구』 17, 한국실학학회, 2009.
- 정은진, 「18세기 서화제발 1 - 서화제발의 史的 전개와 18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_____, 「18세기 서화제발 2 - 숙종, 경종시대: 息山 李萬敷와 東谿 趙龜命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善息齋 鄭持淳의 畫論」, 『한문교육연구』 3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정일남, 「圃隱 鄭夢周 詩의 楚辭 수용 一考」,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 「徐居正 詩의 楚辭 受容 樣相」,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정재철, 「조선전기 문장가의 한유문 토석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 - 범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 정천구, 「《명심보감》의 사상적 특성 연구」, 『동양한문학회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정출현, 「임진왜란의 영웅을 기억하는 두 개의 방식 - 사실의 기억, 또는 기억의 서사」,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정충권, 「〈看羊錄〉의 被虜 체험 글쓰기와 그 문학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정훈식·남송우, 「조선후기 일본지식의 생성과 통신사행록」, 『동양한문학회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조도현, 「〈酒肆丈人傳〉과 〈郭索傳〉에 나타난 權輿의 作家意識」,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 조상현, 「禪佛敎의 ‘實相’의 의미와 詩的 구현 - 고려시대 禪詩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조영인, 「玉所 權變의 題書詩 研究」, 『한국한시연구』 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 , 「玉所 權變의 〈夢記〉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조창규, 「濂洛風 漢詩로서의 林居詩 研究」,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조창록, 「〈林園經濟志〉의 찬술 배경과 類書로서의 특징」,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2009.
- 조창록, 「記事의 양식적 특성과 작품 세계」,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조혁상, 「朝鮮後期 士人의 日本刀 認識에 대한 考察」,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 「實學에서의 漢詩, 漢詩에서의 實學 - 그 시각과 연구방법」,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 「元重舉의 〈安龍福傳〉연구 - ‘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2009.

- _____, 「秋帆 權道溶의 민족운동과 현실 대응의 양상」, 『한문교육연구』 3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차경희, 「《林園經濟志》 속의 조선후기 飲食」,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2009.
- 千金梅, 「李尙迪이 중국 문인들에게 받은 편지 《海隣尺素》」, 『문헌과 해석』 46호, 문헌과해석사, 2009 봄.
- 최 식, 「1896년 俄羅斯 使行, 《環瑯日記》와 《環瑯吟艸》 - 使行錄의 觀點에서 바라본 俄羅斯 使行」,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_____,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최경열, 「담헌 《회우록》의 함의」, 『고전과 해석』 7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9.
- 최경춘, 「秋史金正喜의 學問論」,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최석기, 「遁翁韓汝愈의 《中庸》解釋과 그 意味」,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_____, 「玉溪 盧禎의 志趣와 學術」,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_____, 「조선시대 士人들의 지리산유람을 통해 본 士意識 - 15~16세기 지리산 유산기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 _____, 「侂宇 郭鍾錫의 明德說 論爭 - 金鎮祐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최영성, 「한국유학사에서 侂宇 郭鍾錫의 위상」, 『남명학연구』 2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최영욱, 「金澤榮과 曾國藩의 문장론 비교 - 歸有光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6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9.
- 최영호,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최옥산, 「단재의 아나키즘과 중국, 그리고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41,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 최원경, 「如意枕銘」에 나타난 욕망에 관한 재인식」,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최재남, 「瓶窩 李衡祥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최준하, 「麗末 李穀·李穡 父子의 '傳'文學 比較考察」, 『어문연구』 제62집, 어문연구학회, 2009.
- 최지녀, 「'香娘'을 형상화하는 두 가지 방식 - 향랑전과 향랑전설」, 『국문학연구』 19집, 국문학회, 2009.

- 최천집, 「<호질>의 사상적 기반」,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 하정일, 후기 신채호의 아나키즘과 최종심급으로서의 민족주의, 『민족문학사연구』 41,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 한민섭, 「徐命膺의 <保晚齋四集>의 편찬과정과 특징」, 『한국실학연구』 17, 한국실학학회, 2009.
- 한성급, 「蓀谷 李達의 표현 기교」, 『고시가연구』 2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 한영규, 「19세기 여항 문단과 醫官 洪顯普」, 『동방한문학』 38,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秋史派 醫官 洪顯普의 시문집, <海初文稿>」, 『문헌과 해석』 47호, 문헌과해석사, 2009 여름.
- 한예원, 「初學 漢文教材로서의 <擊蒙要訣>의 意義 朝鮮儒敎의 慣習化 過程-」, 『한문교육연구』 3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함영대, 「<孟子> 解釋의 拮抗的 側面에 대한 一考」,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_____, 「日本 古學派의 <孟子> 解釋과 茶山 丁若鏞의 <孟子要義>: 仁義禮智에 대한 解釋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임란이전 조선 중앙관료의 일본인식,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허경진, 「水路朝天錄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허경진·곽미선, 「金澤榮의 중국에서의 學術活動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허경진·김성은, 「<艷艷>에 수록된 잡제시에 대하여」, 『大東漢文學』 제30집, 대한문학회, 2009.
- 홍나영, 「조선후기 복식과 임원경제지」,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2009.
- 홍용희, 「시와 禪의 상관성 한 고찰」, 『어문연구』 제61집, 어문연구학회, 2009.
- 홍원식, 俛宇 郭鍾錫의 성리설 - 한주 성리설의 계승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황만기, 「稷下詩社에 관한 考察」,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_____, 「淸 金尙憲 考察 - 한시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 황수정, 「19세기 말~20세기 초 구례 지역 한시의 전개 양상」, 『고시가연구』 2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 _____, 한시에 투영된 섬진강의 풍경, 『고시가연구』 2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 황위주, 華軒과 秋帆의 <天嶺樂府>, 『남명학연구』 2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 ,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황의열, 「塘村 黃暉와 <塘村閑話>」,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황재문, 「사환일기와 관직생활」,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황하준, 「華西 李恒老 漢詩 研究」, 『한문교육연구』 3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葛榮晉, 「시대는 동아시아의 新實學」을 부르고 있다,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蔡振豐, 「丁若鏞 四書詮釋의 체계와 그 의의」,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오가와 하루히사, 「實心實學 개념의 역사적 사명」,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오오키 야스시, 「作者的 肖像: 동아시아 圖書史의 한 단면」,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제임스 루이스, 「문명의 가격? - 17~19세기 조선의 일본으로의 사절의 역할과 비용」,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후마 스스무, 「국교 두절 하, 朝鮮-琉球 양국 사절단의 北京 접촉」,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코지마 야스노리, 「히로세 탄소(廣瀨淡窓)와 丁茶山 - ‘以心制心’ ‘以禮制心’ ‘以天制心」,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Don Baker, 「실천 윤리학과 실학: 도덕수양에 대한 다산의 접근」,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4. 기획 주제 및 관련 논문 목록

- 1) 21세기 사회변동과 한국한문학 연구의 방향: 『大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 안대회, 「21세기 사회변동과 한국 한문학 연구의 방향」
- 강명관, 「전근대 문학에 있어서 생활과 문학의 交織」
- 심경호, 「글로벌시대 한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 이종묵, 「다전공 복합학문시대 한문학연구의 역할」
- 송병렬, 「디지털 시대, 漢文教育의 代案 탐색」
- 김혈조, 「한문 고전의 대중화 방안 모색」
- 이상하, 「고전번역의 현실과 학제간 연계의 필요성」

- 2) 東아시아 實學, 그 意味와 發展,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임형택,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김태영, 「磻溪 柳馨遠의 變法論的 實學風」
葛榮晉, 「시대는 동아시아의 '新實學'을 부르고 있다」
오가와 하루히사, 「實心實學 개념의 역사적 사명」
Don Baker, 「실천 윤리학과 실학: 도덕수양에 대한 다산의 접근」
蔡振豐, 「丁若鏞 四書詮釋의 체계와 그 의의」
진재교, 「實學에서의 漢詩, 漢詩에서의 實學 - 그 시각과 연구방법」
- 3) 17~19세기 동아시아 지식 정보의 유통과 네트워크, 『대동문화연구』 68, 대동문화연구원, 2009.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한·중·일 간의 지식교류 양상 - '이성적 대화'의 열림을 주목해서」
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 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
제임스 루이스, 「문명의 가격?-17~19세기 조선의 일본으로의 사절의 역할과 비용」
후마 스스무, 「국교 두절 하, 朝鮮-琉球 양국 사절단의 北京 접촉」
오오키 야스시, 作者의 肖像 - 동아시아 圖書史의 한 단면」
- 4) 문헌교류와 지식의 소통, 『한국문화』 제45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金文京, 「高麗本 孝行錄과 中國의 『二十四孝』」
李鍾默, 「17~18세기 中國에 전해진 朝鮮의 漢詩」
李春姬, 「19세기 朝鮮文人과 淸 常州派 후계문인의 交游」
Jiwon Shin, 「당호를 통해서 본 19세기초 소동과 관련 서화 소장 문화와 대청 문화 교류」
- 5)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그 안과 밖,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이승수, 「고려말 對明 使行의 遼東半島 경로 고찰」
최석기, 「조선시대 士人들의 지리산유람을 통해 본 士意識 -15~16세기 지리산 유산기를 중심으로」
김혈조, 「『熱河日記』를 통해서 본 燕行 사신의 의식주 생활」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戶 체험과 그 의미」
김용태, 「1790년 柳得恭이 만난 동아시아」
장유승, 「조선 후기 변경 지역 인식의 변모양상」
최 식, 「1896년 俄羅斯 使行, 『環璆日記』와 『環璆吟艸』」

- 6) 조선시대 한문학의 대외인식,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함영대, 「임란이전 조선 중앙관료의 일본인식」
 윤인현, 「『海行摠載』所載 일본 기행시 考察」
 임영길, 「心田 朴思浩의 『燕薊紀程』에 대한 일고찰」
 엄태웅, 「연행 체험에 나타난 기억의 변모 양상」
 김영옥, 「규장각본 『廣寒樓記』 詩詞를 통해 본 중국 문학 수용 양상」
- 7) 한국한문학과 바다,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박성규, 「기조발제: 한국한문학과 바다」
 최영호,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허경진, 「水路朝天錄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정 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 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探討」
 신익철, 「申景濬의 국토지리관과 船舶에 대한 인식」
 윤인현, 「韓國 漢詩에 나타난 ‘바다’ 소재와 주제」
 임채명, 「朝日 文士の 눈에 비친 南海 그리고 玄海灘 - 주로 使行 관련 詩文을 중심으로」
- 8) 한국한문학과 중국,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박성규, 「기조발제: 韓國漢文學과 中國」
 정일남, 「圃隱 鄭夢周 詩의 楚辭 수용 一考」
 김종서, 「蓀谷 李達의 樂府詩 受容과 美的 成就」
 박병익, 「朝鮮朝의 西崑體 수용과 창작 양상」
 정재철, 「조선중기 문장가의 한유문 토석과 그 의미」
 윤인현, 「한국 詩歌論에서의 『詩經』 詩 이론의 영향」
 김언중, 「茶山 論語說의 梗概와 그 精髓에 대하여-茶山의 “予所否者, 天厭之”解」
- 9) 朝鮮時代 日記類 資料와 士大夫의 日常,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황재문, 「사환일기와 관직생활」
 황위주,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이성임,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妓女의 立役과 運用」
 오용원, 「考終日記와 죽음을 맞는 한 선비의 日常」
- 10) 여성과 법, 제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김은아, 「조선 전기 여성의 법적 지위」

- 김난옥, 「고려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 -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 - 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백옥경,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 경상도 지역의 「檢案」을 중심으로」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 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11) 事件의 記錄과 漢文學,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曹蒼錄, 「記事의 양식적 특성과 작품 세계」
宋赫基, 「조선시대 문학비평에 나타난 記事의 사실성과 문학성」
金垞亨,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任完熾, 「筆記에서 事實의 意味」
申相弼, 「사실의 기록과 ‘傳’ 양식의 새로운 가능성」
鄭敬薰, 「『擘對說話』의 사실성과 의미」
尹智勳, 「삼교 안석경의 기록정신과 「金永哲傳」」

12) 조선 후기 서울지역의 문학과 도시문화사,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신경숙, 「19세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박애경, 「서도소리의 서울 유입과 도시문화로의 전환」
홍태한, 「서울곳을 통해 본 서울의 무속문화」
손태도, 「조선 후기 서울에서의 광대 문화 변동과 판소리」
이창현, 「방각소설 출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방각소설의 출판과 언어, 문화의 표준화」
김경미, 「서울의 유교적 공간 해체와 섹슈얼리티의 공간화 - 19세기 소설을 중심으로」
안대회, 「城市全圖詩」와 18세기 서울의 풍경」

13) 18세기 嶺南 한문학의 전개, 『한국학논집』 3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 김영숙, 「蠹窩 崔興璧의 생애와 시세계」
김윤조, 「靑泉 申維翰의 門人들과 그 문학적 성향」
송혁기, 「신유한 산문의 일고찰: 記事의 문학성을 중심으로」
임규완, 「僑窩 成涉의 생애와 저작, 학문경향」

14-1) 조선의 인문정신을 열어간 사람들: 김종직 선생과 그의 ‘젊은’ 제자들 II,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이종범, 「佔畢齋 金宗直의 內面世界와 初期 士林派」
김영봉, 「二樂亭 申用漑의 시문학 연구」

김용태, 「虛白亭 洪貴達과 초기사립과」
 류호진, 「李胄의 唐風志向과 그 문학적意味」

14-2) 조선의 인문정신을 열어간 사람들: 김종직 선생과 그의 '젊은' 제자들 III,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이은영, 「士禍期 한 젊은 사대부의 肖像」
 강구윤, 「適菴 曹伸 漢詩의 '昨非·今是'의 詩世界」
 김익재, 「藍溪 表治沫의 學問性向과 現實對應」

15-1) 侁宇 郭鍾錫의 學問과 思想, 『남명학연구』 2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최영성, 「한국유학사에서 侁宇 郭鍾錫의 위상」
 최석기, 「侁宇 郭鍾錫의 明德說 論爭 金鎮祐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홍원식, 「侁宇 郭鍾錫의 성리설-한주 성리설의 계승을 중심으로」
 서동일, 「1896년 郭鍾錫의 布告天下文 발송 경위」
 김동준, 「侁宇 郭鍾錫의 漢詩에 부조된 智異山의 形象」
 박우훈, 「侁宇 郭鍾錫의 傳에 對하여」

15-2) 侁宇 郭鍾錫의 學問과 思想,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이영호, 「侁宇 郭鍾錫의 논어학과 그 경학사적 위상」
 권오영, 「19세기의 嶺南 學界와 侁宇 郭鍾錫의 理學」
 이상하, 「侁宇 郭鍾錫의 性理說 -寒洲 성리설의 수용과 전파-」
 설석규, 「侁宇 郭鍾錫의 政治哲學과 國權恢復 방향」
 신승훈, 「侁宇 郭鍾錫의 文學思想 一考」
 이의강, 「侁宇 郭鍾錫의 漢詩의 人格美」
 이상필, 「侁宇 郭鍾錫의 南冥學 繼承樣相」

16) 새로 발굴한 정조 어찰의 종합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66, 대동문화연구원, 2009.

김문식, 「正祖 말년의 정국 운영과 沈煥之」
 박철상, 「새로 발굴한 『正祖御札帖』의 資料的 價値」
 백승호, 「새로 발굴한 정조어찰첩의 내용 개관」
 안대회, 「御札帖으로 본 正祖의 인간적 면모」
 장유승, 「『正祖御札帖』의 사료적 성격 『承政院日記』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17) 林園經濟志의 종합적 고찰,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2009.

김문식, 「楓石 서유구의 학문적 배경」

- 조창록, 「『林園經濟志』의 찬술 배경과 類書로서의 특징」
이헌창, 「『林園經濟志』의 경제학」
염정섭, 「『林園經濟志』 「本利志」의 農政改善論」
장진성, 「조선 후기 미술과 『林園經濟志』 - 조선 후기 古董書畫 수집 및 감상 현
상과 관련하여」
홍나영, 「조선후기 복식과 임원경제지」
차경희, 「『林園經濟志』 속의 조선후기 飮食」

- 18) 신채호의 문학과 아나키즘, 『민족문학사연구』 41,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하정일, 「후기 신채호의 아나키즘과 최종심급으로서의 민족주의」
최옥산, 「단체의 아나키즘과 중국, 그리고 문학」
김준형, 「단체 신채호의 글쓰기와 소설 - 고전소설과 1910년대 단체 소설의 상관
성을 중심으로」
장경남, 「신채호 역사전기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김성수, 「신채호의 영웅 전기와 근대적 글쓰기 기획 - 『을지문덕』의 글쓰기 방식
재검토」